

學術活動支援 · 國際的交流促進



— 5개분과 학회 육성 —



하 영 수 회장

1970년 8월 우리 모든 간호인들이 그동안 숙원해 온 간호학회가 간호협회 산하단체로 발족을 보게되었음은 역사적인 거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 학회가 자립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할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오랜 연륜과 전통을 가진 간호협회 산하에 묶어 놓았던 것이다. 또 같은해 9월에는 학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하였고 학술발표회, 학회지(창간호) 발간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1971년 6월에는 5개의 간호학 분과학회(내외과간호학, 산소아과간호학, 정신과간호학, 보건간호학, 간호행정학)을 발족시켜 분과별 학술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74년 4월에는 드디어 간호협회 산하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와같이 학회가 발족되어 불과 수년만에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와 높은 연구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회의 발족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학술영역에서의 간호학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교류와 연구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호학은 응용과학의 학문분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곧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회의 목적은 학술교류와 연구활동을 통해 간호학을 발전시키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격을 겸양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해공헌하는 데 있다. 기본자적은 학사학위소지 간호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회의 연중 중요사업에는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학회지 발간 및 분과학회별 학술활동 등이 있다. 학술세미나와 발표회를 통해 간호학의 최신 지식과 경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논문을 회지에 게재, 발간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널리 독자들에게 알리고 실제 간호상황에 적용되어 지도록 자극하는데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의 급급한 회원모집과 버릇처럼 매년 연중사업에만 그치고야마는 경향을 지양하고 단기간 내에 이루어야 할 활동과 장기간을 거쳐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활동으로 나누어 계획성있는 학회운영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연구사업을 계속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금이 적절히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국내 활동에서 탈피 국제적 교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학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동시에 연쇄적으로 행해져 온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하는데 강조를 두고 있다. 우선 학회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연회비제와 병행해서 평생회원제를 신설하고 분납제라도 실시해서 회비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하 분과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그리고 전임 사무직원과 최소한 학회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평생회원이 많이 모집된 후에는 회관 건립을 위한 기성금의 적립이 필요하다. 이상의 여러가지 사업들은 단시일내에 완성되어질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계획하에 꾸준히 사업 하나하나를 진행하므로 보람과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